

# 중국어사회언어학의 내용과 특징(1)

鄭 鑣 控\*

## ◁ 목 차 ▷

- |                    |           |
|--------------------|-----------|
| 一. 시작하며            | 五. 언어접촉   |
| 二. 사회언어학의 출현배경과 역할 | 六. 언어와 문화 |
| 三. 언어변이            | 七. 언어계획   |
| 四. 언어교제            | 八. 마치며    |

## 一. 시작하며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은 195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60년대 정식으로 학계에 제기된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의 범주에 속하는 분야이다. 그것에 대한 정의<sup>1)</sup>에는 諸家의 견해가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언어에 보이는 여러 가지 변이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교육, 직업 등의 사회적 요소가 언어의 구성 요소에 어떻게 반영되며 그 연관성은 어떠한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관점에서 언어에 보

\* 숭실대학교 중문과 조교수

1) 「사회속의 언어에 대한 연구로서 언어학과 여러 사회과학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가 적용된다. 언어의 구조 및 사용에 있어서의 변이 가능성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여러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하여 언어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하려 하는 분야이다. 변이형과 화자의 사회적 위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 Labov 등의 경향과 발화맥락에 따른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Hymes 등의 소통의 민족학지/문화기술적 경향 및 언어사회학(sociology of language)적 경향이 있다.」(이정민·배영남《언어학 사전》p.832)

「넓은 의미로는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사회라는 맥락속에서 언어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과 문제, 언어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현상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심, 관심의 초점, 연구의 궁극적 목적 등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회언어학은 몇 가지 분파로 나누어 진다.」(조성식 주편《영어학 사전》p.1138)

「언어와 사회 제방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다른 사회과학(예를 들어, 사회학, 인류학, 민족학, 심리학, 지리학, 역사학 등)적 관점에서 언어를 고찰하며, 진일보하게 서로 다른 사회적 조건하에서 발생한 언어변이를 연구한다. (研究語言與社會多方面關係的學科。它從不同的社會科學(諸如社會學、人類學、民族學、心理學、地理學、歷史學等)的角度去考察語言, 進而研究在不同社會條件下產生的語言變異。)>(《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卷》p.336)

이는 變異현상을 포착하여 그 속에 내재된 모종의 특징과 규율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언어학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일부 언어학자들은 사회언어학을 재분류<sup>2)</sup>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사회언어학의 천연적 寶庫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다민족, 다언어 국가로 무궁무진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자료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 오랜 역사발전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민족의 분화와 융합, 그에 따른 언어적 변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언어학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형성되어진다.

물론 羅常培 《語言與文化》(1950)<sup>3)</sup>는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고찰한 중국 최초의 사회언어학 논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저술은 내용상으로는 동서고금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지만, 편폭이 너무 적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사회언어학의 진정한 수립은 사회문화적 여건이 비교적 성숙된 문화대혁명의 종결 이후로 봄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필자는 중국사회언어학의 내용과 특질을 소개할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본고에서는 우선 80년대이래 중국사회언어학의 주요 연구성과를 1. 언어변이 2. 언어교제 3. 언어접촉 4. 언어와 문화 5. 언어계획 등의 방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상기한 항목들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내용은 아니며, 상호 교차와 접목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1. 영국의 M.A.K.Halliday 는 사회언어학을 거시사회언어학(macrosocio-linguistics)과 미시사회언어학(microsocio-linguistics)으로 양분하였다.  
거시사회언어학은 언어정책, 언어계획, 언어관계 등의 비교적 광역화된 문제들을 그 범주에 포함하며; 미시사회언어학은 사회구성요소로 인한 개별적 언어변이현상을 주로 연구 하는 것이다.
2. 소련의 Б. Н. Головин 는 사회언어학을 광의의 사회언어학과 협의의 사회언어학으로 양분하였다. 광의의 사회언어학은 언어변이의 전반적인 체계를 연구하며, 협의의 사회언어학은 언어변이의 부분적인 내용만을 연구한다. 예를 들면 연령, 직업, 계층 등의 요인이 언어기능과 언어구조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 등을 연구한다.
3. 소련의 R. Grosse와 A. Neubert 는 언어의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of Language)과 사회의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of Society)으로 양분하여, 전자는 언어를 중심으로 사회요소가 언어변이를 조성함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범주이고, 후자는 사회를 중심으로 언어에 반영된 사회문제 연구로, 사회학의 범주에 속한다.
- 3)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어휘의 어원과 그 변화로 본 고대문화의 흔적; 제2장 어휘의 구성성리로 본 민족의 문화정도; 제3장 외래어로 본 문화의 접촉; 제4장 지명으로 본 민족어동의 발자취 제5장 성씨와 호칭(別號)으로 본 민족의 기원과 종교신앙; 제6장 친족관계의 명칭으로 본 혼인제도. 등이다.

## 二. 사회언어학의 출현배경과 역할

사회언어학이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학계에 제기되어 언어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실은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반증하는 좋은 증거일 것이다. 일반언어학의 발전 역사를 통해볼 때, 우리들은 18세기까지가 철학의 세기<sup>4)</sup>였다면: 19세기는 역사비교의 세기이고: 20세기가 구조와 변형생성의 시기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인 Saussure(1857-1913)는 《普通語言學教程》(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에서 “언어학의 유일하며 진정한 연구대상은 언어 그 자체이며, 언어연구를 위한 언어연구가 언어학의 궁극적인 목표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언어연구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내부구조의 분석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언어의 공시적 연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극명하게 대두된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출현한 Chomsky의 변형생성이론도 언어를 기본적으로 생리학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Chomsky의 언어학이 언어를 생리학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이 언어의 연구에서 공시적인 탐구가 중시되고, 통시적인 고찰이 상대적으로 경시된다. 즉 소쉬르 이래로 촘스키에 이르기까지 통시언어학의 연구는 공시언어학과 별개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것은 곧 당대 언어학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언어의 통시적 변화의 사실이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언어는 생리학적인 현상인 동시에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다. 촘스키의 용어를 빌리면 그의 I언어(Internalized language)는 생리학적 언어(내재적 언어)이며, 그의 E언어(Externalized language)는 문화 사회적 언어(외재적 언어)이다. 이 두 가지 언어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언어가 어떠한 측면에서 연관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언어가 얼마만큼 생리학적인가를 가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촘스키는 언어의 생리학적인 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언어에는 생리학적 측면 외에도 사회문화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홀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언어학의 출현시기는 촘스키의 변형생성이론이 언어학계에 강렬한 반향을 불

4) 18세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은 언어를 이론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철학적 토론은 종종 언어학적 문제들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논쟁거리를 포함했다. 철학적인 관점에 대한 더욱 정확한 형식을 기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1. 언어의 기원에 대한 연구 2. 소리구조와 대응의미와의 직접적인 관계 3. 어법적인 형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러일으킨 시기였다. 언어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관점에 있어서, 사회언어학은 변형생성이론과는 다르다. 변형생성이론가들은 구조주의는 언어행위만을 연구하고 인간의 잠재적인 언어능력은 연구하지 않았다고 보았기에 경험주의적인 산물인 것이며, 자신들의 이론은 언어행위뿐만 아니라 언어능력까지도 연구하는, 즉 언어의 심층구조 등을 연구하는 이성적 산물로 자부하였다. 촘스키 이론이 현대언어학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참신한 각도에서 언어의 보편현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변형생성이론과 구조주의는 모두 “관념(상상) 속의 인간”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사회적 인간” 언어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하였다. 촘스키는 그의 《句法理論》(Syntactic Structures)에서 “언어학이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관념 속의 화자가 청자를 겸하고 있으며, 그가 속한 사회의 언어는 매우 단순한 것이다.” 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사회언어학의 기본적인 관점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각기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간은 서로 다른 언어변이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언어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바로 “사회적 인간”의 언어이지 “관념 속의 인간”의 언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60년대부터 언어학은 크게 두 줄기의 산맥을 이루며 발전하여 왔다. 변형생성이론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언어학이었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고, 그 보급과 발전은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은 언어 연구의 구조중심적인 기존의 틀을 탈피하여 광활한 언어연구의 영역을 개척하였다. 즉 사회언어학은 언어연구를 내부로부터 외부로 끌어내어, 언어변이의 각종 사회적 요소의 제약을 중시하였으며 서로 다른 사람과 언어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층위의 언어를 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일반언어학에서는 언어를 단일하고 순수한 개체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사회언어학에서는 언어에는 변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순수한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일반적인 언어관념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언어학이 언어의 객관적인 실체를 조명하는데 기존의 언어이론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 三. 언어변이

언어변이의 대표적인 형태인 방언은 어떠한 언어(표준어)의 특정한 형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고유의 음운적, 어휘적, 통사적 체계를 가지며 그 언어보다는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중 지역적 변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방언

(regional dialect)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 변이가 일반적인 방언과는 약간 성향을 달리하는 사회 방언이다. 특히 사회방언은 성별의 차이, 계층의 차이, 업종의 차이, 연령의 차이 등에 의해서 주로 형성되어 집에 따라 계층방언(class dialect)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 방면의 대표적인 저작인 周振鶴·游汝杰《方言與中國文化》(1986)<sup>5)</sup>는 중국의 인문 지리적 특질에 근거하여, 과거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하는 역사지리분석법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방법은 서구의 방언지리학자들이 방언구획에 주로 이용하였던 等語線(isoglosses)의 방법 보다 중국방언의 경계를 표시하는데 더욱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張清常《胡同及其他—社會語言學的探索》(1990), 曹志耘《濟南方言若干聲母的分布和演變》(1991) 등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북경 방언과 산둥방언을 고찰한 것이다.

언어변이와 연관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언어와 성(gender)의 관련에 대한 것이다. 서구에서 70년대 중반 이후 언어와 성에 관한 연구가 여성의 불리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언어의 역할에 집중되어 왔다면, 그 이전에는 언어학자들이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언어와 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몇몇 언어에서의 성에 따른 어휘적, 음운적, 형태적인 차이를 기술하려는 시도이다. 둘째, 초기의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에서 성을 언어적 변항(linguistic variable)과 관련된 독립 변항(independent variable)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지위, 화체, 연령, 민족성 등의 변항들과 함께 연구하는 것이다.<sup>6)</sup> 이 방면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趙麗明·宮哲兵《女書——一個驚人的發現》(1990), 趙麗明《中國女書集成》(1991), 史金波 등《奇特的女書》(1995), 趙麗明《女書與女書文化》(1995) 등이 있다. "女書"는 과거 湖南省 江永縣 瀟水유역 농촌의 부녀자들이 사용했던 여성전용문자이다. 근래, "女書"의 분석과 해석은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많은 사회언어학자들의

5) 《方言與中國文化》의 본문부분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방언과 민족이동의 관계; 제2장 방언지리와 인문지리의 관계; 제3장 역사방언지리의 예측과 그 문화적 배경; 제4장 언어학적 식물재 발전사의 연관성; 제5장 지명으로 살핀 문화적 요소; 제6장 방언과 회곡·소설의 관계; 제7장 방언과 민속의 밀접성; 제8장 언어접촉과 문화교류 이다. 또한 《方言與中國文化》는 문화언어학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언어학과 문화언어학의 구분이 아직은 분명치 않은 실정이다. 游汝杰은 《中國文化語言學引論》(1993)에서 사회언어학과 문화언어학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전자가 언어사용의 규칙에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출발하여 특정 언어 혹은 방언의 특질 및 사용상의 특질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둘째, 전자가 공식적 연구에 중점이 있다면; 후자는 통시적인 언어현상의 연구에 그 중점을 둔다. 셋째, 전자가 사회과학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풍부하다면; 후자는 인문과학과의 접목적 연구를 중시한다.

6) Ralph Fasold著 황적륜 譯《사회언어학》P.125 참조.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사회방언 현상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종류가 나오게 된다. 상술한 것처럼 성별의 차이에 의해서 남성어와 여성어로 나뉘고; 연령차이에 의해 유아어, 아동어, 성년어, 노인어로도 나뉘어 진다. 계급의 차이에 따라 궁중어, 상류어, 중류어, 하류어로 나뉘고, 개인마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전문어, 학술어, 오락어로도 나뉜다. 최근 중국에서도 광고언어와 관련된 서적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그중 비교적 다채로운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曹志耘 《廣告語言藝術》(1992)이다.

#### 四. 언어교제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자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수사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대화자 쌍방은 언어를 복잡 미묘하게 사용하여, 자신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자신들을 한 사회집단의 일원으로 동일시하며, 또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사례의 종류를 아울러 결정하는 것이다.

언어가 사회적 문맥에 따라 여러 변이로 갈린다고 할 때,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또 가장 미묘하고 복잡하게 드러나는 것은 좁게는 호칭에서일 것이며, 넓게는 경어법에서일 것이다. 즉 언어교제에 있어서, 언어가 여러 모습의 변이로 나타나는 현상을 살피려 할 때, 호칭 및 경어법은 우리들이 가장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羅常培는 《語言與文化》(1950) 제6장에서 “친족호칭으로 본 혼인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일찍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그 후 陳建民《語言文化社會新探》(1989), 姚亞平《文化的撞擊—語言交往》(1990), 蘇新春《文化的結晶—詞義》(1994) 등의 논저에서, 친족용어의 호칭과 관련된 사회적 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그중 蘇新春(1994)은 상세한 언어 자료의 분석에 기초한 사회 문화적인 해석을 시도하여 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친족호칭은 사실상 가족의 구조와 혼인의 형태에 따라 변화한다. 중국도 최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줄어드는 반면, 핵가족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족호칭도 단순화되어 하나의 어휘가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현대중국어에서 叔叔, 阿夷, 爺爺, 奶奶 등이 다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祝曉瑾《稱呼研究小議》(1993), 謝俊英《試從社會語言學的角度考察漢語人稱代詞“您”的產生和發展》(1993), 周慶生《俵族親屬稱謂變體》(1994), 郭鳳凰

〈交際·關係場·稱謂〉(1996) 등이 이 방면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실 중국어에 보이는 겸양어, 금기어, 완곡어, 길상어 등도 더없이 훌륭한 사회언어학의 연구과제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들은 그것을 억지로 어법의 테두리에 가두려 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많은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劉潤清〈關於Leech의禮貌原則〉(1987), 顧曰國〈禮貌、語用與文化〉(1992), 畢繼萬〈西方CP和PP與中國漢人的禮貌原則〉, 佐斌〈面子與臉——一項關於中國人典型心理的初步分析〉(1993) 등은 중국사회문화적 특질에 기초하여, Leech 등 서방학자의 경어법(공대법) 이론에 대한 수정과 비판을 제기하면서, 중국 경어법에 내재된 사회 문화적 요소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五. 언어접촉

주지하듯이, 지구상에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민족은 없다. 특정 민족은 항상 다른 민족과 각양각색의 접촉을 통해 부단히 변화·발전한다. 민족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인 언어는 교제수단의 도구이기 때문에 민족의 사회, 문화, 심리, 사유방식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족관계에 따라 언어도 상호 영향·제약의 관계에 있다. 이 같은 관계는 언어구조 뿐만 아니라, 언어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민족·다언어국가인 중국에서 언어의 접촉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언어학적 과제이다.

기존의 역사비교언어학이 연구의 중점을 두는 분야는 언어역사의 발전법칙으로 친족언어의 비교를 그 기초로 삼고 있다. 그것은 사회의 언어역사와도 연계되지만, 주로 언어자체의 역사변화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전통적인 구조주의 언어학이 연구하는 것도 개별언어의 공식적 특징에 타 언어의 영향으로 야기되는 언어변화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주로 언어자체의 구조적 특질 묘사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변화·발전을 연구함에 있어서 언어자체를 연구하는 것 외에도 다른 언어(비친족언어도 포함)와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개별언어의 묘사와 개별언어의 역사연구 성과를 참조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활발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어와 소수민족언어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작업이 대단히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방면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戴慶廈《漢語與少數民族語言關係概論》(199

2), 中國少數民族雙語教學研究會《中國少數民族雙語研究論集》(1990), 延邊大學編輯委員會《雙語雙文化》, 陳恩泉 주편《雙語雙方言》1집~3집(1989, 1992, 1994) 등이 있다. 특히 戴慶廈는 《漢語與少數民族語言關係概論》(1992)에 기초하여, 중국어와 소수민족언어의 비교적 관점에서 《社會語言學》(1993)<sup>7)</sup> 을 출간하여, 중국적 사회언어학의 특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언어는 변화한다. 언어의 변화는 고대의 산물만은 아니며, 언어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언어변화의 이유는 매우 복잡하여 그 분명한 근거를 밝히기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 언어변화는 대개 음운론적 변화<sup>8)</sup>, 형태론적 변화<sup>9)</sup>, 통사론적 변화<sup>10)</sup>, 어휘의미적 변화<sup>11)</sup>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들의 변화는 항상 각 부분별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변화는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양상 중에서 사회 구성 요소에 의한 언어의 변화가 사회언어학의 주된 연구 과제이다.

개혁·개방이래 어휘 의미적 변화를 반영하는 수종의 사전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熊忠武《流行語詞典》(1989), 郭熙《漢語新語彙詞典》(1993), 李行健《新詞新語詞典》(1993), 李達仁 등《漢語新詞語詞典》(1993), 北京市語言學會《新詞語詞典》(1993), 朱廣祈《當代港台用語辭典》(1994) 등이 있다. 그밖에도 중국사회과학원 語言應用研究所 에서 1991년부터 출간하고 있는 《現代漢語新詞語詞典》은 1978년부터 최근까지의 새로운 어휘와 용법에 기초하

7) 제1장 사회언어학이란 무엇인가(1 사회언어학의 연구대상, 2 사회언어학의 특성배경, 3 사회언어학의 가치, 4 중국사회언어학의 연구상황); 제2장 언어와 민족(1 민족의 제특성중 언어의 위치, 2 언어 경계와 민족 경계, 3 언어사와 민족사, 4 支系와 支系언어); 제3장 언어와 문화(1 언어와 문화의 관계, 2 친족초칭과 친족제도, 3 고유명칭의 명명, 4 언어와 문화, 5 언어와 종교); 제4장 언어관계와 민족관계(1 언어관계의 개념 및 연구내용, 2 언어영향, 3 언어전용, 4 언어경용, 5 중국 언어관계의 몇 가지 특징); 제5장 언어와 언어관념(1 언어관념이란 무엇인가, 2 언어관념의 구체적 표현, 3 언어관념을 제약하는 요소, 4 언어관념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 제6장 언어와 성별, 연령, 계층, 직업과의 관계(1 언어와 성별, 2 언어와 연령, 3 언어와 계층, 4 언어와 직업); 제7장 언어와 국가경계—跨境언어변이(1 跨境언어의 개념 및 연구의의, 2 跨境언어의 변이); 제8장 문자와 사회(1 문자의 사회적 속성, 2 문자로 본 사회, 3 중국민족의 어문작업과 사회언어학)

8) 普通話 어음의 주요한 특질의 하나인 “兒化韻”의 사용이 현재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9) 단음절 형태소의 다음절화 경향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다.

10) 현재 출간되는 신문·잡지등에서는 ‘지시대체사’와 ‘양사’가 생략된 형태의 문행이 자주 등장된다. 예1)《道篇》文章說……”, 《那篇》文章認為……”: “把字句”의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일부 학자들은 普通話는 “SOV” 어순과 동시에 “SOV”의 특질을 지닌 구조로 파악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SVO”구조가 “SOV”로 전환되는 과정중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11) 普通話 “愛人”은 현재 ‘남편, 아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愛人”의 ‘서로 사랑하는 남녀’라는 비교적 습관적인 의미는 이미 퇴색된지 오래이다.



여 연대순으로 편찬한 사전으로, 최근 어휘의 변모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六. 언어와 문화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계의 규명은 사회언어학의 전통적인 주제<sup>12)</sup>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어의 소리, 어휘, 통사구조와 그 언어의 화자가 사회를 경험하고 그 사회에서 행동하는 방식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Sapir—Whorf의 가설<sup>13)</sup>을 통하여 이미 이론화 되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진다. 문화란 사회에서 인간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창조한 성과물이며, 언어 역시 인류가 만들어낸 교제의 수단이므로 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공통적인 측면 외에도, 언어와 문화는 각기 다른 특징<sup>14)</sup>을 지니기도 한다.

언어와 문화의 긴밀성은 그들의 기원과 발전의 관계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용방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언어의 사용방식은 문화를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족에 의해 계승되는 민족 특유의 생활방식과 사유방식을 결정하는 의미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다. 언어의 발전은 문화의 발전에 상응하며, 언어의 변화 또한 문화의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언어의 측면에서 문화의 특징을 관찰한다.(문화의 유형, 영향, 유적, 발전과정 등) 둘째, 문화의 측면에서 언어현상을 파악한다.(언어의 분화와 통일, 영향, 접촉, 轉用 등) 셋째, 언어와 문화에 내재된 연관관계와 발전상의 상호관계를 연구한다.

현재 중국은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언어와 문화와의 연구상황을 고찰하여 보면,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제한적

12) Whorf의 가설, 색깔 용어(Color Terminology), 원형이론(Prototype Theory), 언어와 민족의 관계 등등의 문제는 사회언어학연구의 초창기부터 줄곧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테마들이다.

13) 사람들의 세계관 및 우주분석방법, 경험방식, 통솔방식 등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그에 상응하여 다르게 나타나는 가설을 말한다. 즉 언어가 그 사용자의 사고방식이나 정신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 언어상대성가설, 언어적 세계관 가설이라고도 칭한다.

14) 첫째, 언어는 정신문화의 범주에 속하며, 정신문화는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계급 사회에서는 철저한 계급성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언어 자체는 계급성을 띠지 않는 특수한 문화의 부류이다. 둘째, 언어는 “約定俗成”을 기본 성격으로 지녀 그것의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문화는 상당한 정도의 人爲的 특질을 지닌다.

인 사회 문화적 요소, 사회적 지위, 교제, 성별 등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어쩌면 사회언어학의 이 같은 제한성 때문에 “문화언어학”이라는 새로운 學際가 출현하여, 사회언어학과 교차과학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80년대이래 이 방면의 주요 논저들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는, 단연 申小龍의 문화언어학 관련 저작<sup>15)</sup>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외에도 游汝杰 <中國文化語言學趨議> (1991), 陳建民 <文化語言學說略> (1987), 張公謹 <語言的文化價值> (1989), 沈錫倫 <表現民族文化的語言形式> (1987), 陳炯 <中國語言學流派與中國文化語言學> (1990), 邵敏敏 <關於中國文化語言學的反思> (1992), 劉丹青 <科學精神：中國文化語言學的緊迫課題> (1993) 등의 논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문화언어학의 유래, 성질, 목표, 주요 유과, 연구동향, 당면과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 또한 史有爲 <漢語文化語言學虛實談> (1992) 宋永培 <中國文化詞彙學的基本特徵> (1990), 趙金銘 <諧音與文化> (1987), 王建華 <人名與文化> (1990), 姚亞平 <人際交往的文化沖突> (1990), 胡文仲 <文化差異與外語教學> (1982) 등의 논문을 통하여, 언어와 문화 접목적 연구의 실제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

## 七. 언어계획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언어계획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나 변이의 체계와 그 운용현상에, 그 공동체 안에서 구속력을 부여받고 있는 공인이나 공적 기관이, 어떤 일정한 목표(일반적으로는 언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영역에 관한 문제는 언어의 내부구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전통적인 언어학의 영역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라는 문맥 속에서의 언어의 기능, 변이의 기능에 주목하는 현대의 사회언어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분야도 사회언어학에서 중요한 하나의 연구 테마가 되고 있다.

언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계획은 반드시 공인된 개인이나 기관이 계획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 언어계획은 민족평등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여야만 한다. 셋째, 언어계획은 일시

15) 拙稿 <중국문화언어학의 동향과 전망>, PP.310~311 참조.

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이어야 한다.<sup>16)</sup>

중국 언어계획의 역사는 秦始皇의 “書同文”정책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후 진행되었던 “普通話”의 보급, “漢語拼音方案”의 제정과 시행, 한자의 簡化和 소수민족의 어문정책등 일련의 사업들이 바로 언어계획의 주요한 내용들이다.<sup>17)</sup> 이 방면의 대표적인 저작들은 주로 《語文建設》, 《中國語文》, 《民族語文》 홍콩의《普通話》, 《語文建設通訊》 등의 지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또한 언어계획과 연관된 주요한 문헌으로는 《新時期的語言文字工作 — 全國語言文字工作會議文件彙編》(1987), 戴慶廈《語言關係與語言工作》(1990), 周有光《新語文的建設》(1992) · 《中國少數民族語言文字使用和發展問題》(1993) 등이 있다.

## 八. 마치며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란 사회라는 문맥 속에서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언어란 화자의 사회적 지위, 문화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 연령에 따라서도 달리 표현되며, 화자의 환경과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민족과 계층에 따라서도,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출된다. 이런 현상들은 전통적인 언어학연구의 범위 내에서는 분명하게 해석할 수 없었으며, 사회언어학의 출현으로 그 해석의 단초를 찾게 된다.

어쩌면 언어는 사회학, 인류학, 민족학, 심리학, 지리학, 역사학, 정치학, 철학 등의 학문 영역에서 다각도로 조명될 때, 그것의 본질적 속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 영역과의 접목이 가능한, 사회언어학의 연구방법으로는 일찍이 Labov가 사용하였던 조사연구방법이 현재 중국에서도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밖에도 수학적 분석방법, 대비연구방법과 실험분석의 방법 등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사회언어학 연구의 역사는 대단히 길다. 우선 훈공의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으며(《爾雅》와 許慎 《說文解字》); 또한 지역방언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역간의 사회 문화적 차이를 기술하기도 하였다.(揚雄《方言》) 다만 이러한 저작들이 사회 문화적

16) 태평부《사회언어학연구》, PP258-260 참조.

17) 《國家語言文字政策法規彙編》北京: 語文出版社, 1996 참조.

인 접근이 부족하여, 그 체계가 명확치는 않다. 그러나 구조주의 언어이론의 영향으로 부분적인 단절은 있었지만 이 같은 언어연구의 전통은 漢代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徐松石《傣族壯族粵族考》1935, 潘懋鼎《中國語語源及其文化》1947)

본고에서 소개한 8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전개된 중국사회언어학연구는 서구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성과물이나 연구방법에 있어서 아직은 그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언어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가까운 미래에 중국적 사회언어학의 설정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 【參考文獻】

- 陳原《社會語言學》上海:學林出版社, 1994.  
 戴慶廈《社會語言學教程》北京: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6.  
 徐大明 外《當代社會語言學》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許嘉路 外《中國語言學現狀與展望》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1997.  
 羅常培《語言與文化》北京:語文出版社, 1996.  
 周振學 游汝杰《方言與中國文化》臺北:南天書局, 1988.  
 邵敬敏《文化語言學中國潮》北京:語文出版社, 1995.  
 索緒爾《普通語言學教程》臺北:弘文館出版社, 1985.  
 태평무《사회언어학연구》서울:도서출판 박이정, 1999.  
 황적륜 외《사회언어학》서울:한신문화사, 1994.  
 이익섭《사회언어학》서울:민음사, 1994.  
 김형효《언어 문화 그리고 인간》서울:고려원, 1993.  
 김성도《문화와 기호》서울:문학과 지성사, 1995.  
 김여수《언어와 문화》서울:철학과 현실사, 1997.  
 김여수《언어진리문화》서울:철학과 현실사, 1997.

### 【中文提要】

社會語言學興起於20世紀60年代的美國。在中國雖然50年代羅常培就在《語言與文化》一書中將語言與社會文化因素聯繫起來考察，但社會語言學作為一門學科的真正起步是在80年代。

其實，中國是研究社會語言學的天然寶庫。這是由於中國是一個多民族、多語種的國家，蘊藏着取之不盡的社會語言學的研究材料。

筆者爲了考察中國社會語言學的內容和特質，本文整理了80年代以來這方面的研究成果，包括：一 語言變異；二 言語交際；三 語言接觸；四 語言與文化；五 語文規劃。

### 【主題語】

중국사회 언어학 언어변이 언어계획 언어교제